광주·전남 가을 전세난 숨통 트이나

연말까지 아파트 7300세대 입주… 중소형이 82%

올 연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 73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해 가을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년 10~12월 전국 8만1255호 집들이 예정'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광주·전남지역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은 총 7346가구이며 이 가운데 광주는 2500가구, 전남은 4846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월별로 보면 광주에는 10월 광산구 한양에드가 1·2·3차 329가구, 광산구 중흥S클래스 801가구를 비롯, 1130가구가 입주하며 11월에는 430가구, 12월에는 940가구가 각각 입주한다. 전남에는 10월 무안 모아엘가 498가구 등 1244가구가 집들이를 하며 11월에는 1983가구, 12월에는 1619가구의 새집이 마련된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1954가구, 60~85㎡ 4095가구, 85㎡ 초과 1297가구 등이며 이 가운데 85㎡(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광주는 한양에드가와 중흥S클래스, 대방노블랜드 등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에 육박한 광산구에 집중돼 전세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흥S클래스의 경우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74㎡·84㎡ 크기로 801세대가 구성됐으며 신규 입주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전남에서는 12월 여수에 프라임시티와 웅천지웰2차 등 911가구가 입주한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광산구의 입주 물량증가는 주택 수요자들에게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도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대단지 입주가 이뤄지면 전세난이 다소 안정화될 여지가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8만1255가구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3만6449가구(서울 9609가구), 지방 4만4806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10~ 12월 광주·전남지역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지역	아파트	합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10월	광주	광산구 한양에드가 1차	69	69	0	0
	광주	광산구 한양에드가 2차	130	130	0	0
	광주	광산구 한양에드가 3차	130	130	0	0
	광주	광산구 중흥S클래스	801	0	801	0
	전남	광양 아르시스	198	0	198	0
	전남	무안 모아엘가	498	0	498	0
	전남	목포 파렌하이트	548	0	96	452
11월	광주	북구 엘리체	430	270	160	0
	전남	순천 우양내안애	530	0	342	188
	전남	여수 그린캐슬	96	96	0	0
	전남	무안 더 트리폴리앙	172	172	0	0
	전남	무안 세영리첼아파트 공동23블럭	395	0	395	0
	전남	목포용해24국민	790	790	0	0
12월	광주	광주 월산 우방아이유쉘	281	0	172	109
	광주	광산구 노블랜드	659	0	161	498
	전남	여수 프라임시티	297	297	0	0
	전남	광양 로제비앙 허브	392	0	392	0
	전남	여수웅천지웰 2차	614	0	564	50
	전남	목포 옥암동 코아루천년가	316	0	316	0

와인 열풍… 올 수입량 24% 증가

와인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입 가격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내놓은 '와인·위스키 수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와인 수입량은 총2만2387㎘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122㎘)보다 23.5% 늘었다. 평균 수입가격은 병당 4256원으로, 지난해의 4415원보다 3.6%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스파클링의 수입량이 32.4% 증가하면서 수입가격은 9.8% 떨어져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적포도주는 수입량이 25.7% 늘고 수입가격은 4.3% 떨어졌다. 백포도주는 수입량이 16.6% 증가하고 수입가는 1.7% 하락했다.

이에 비해 위스키는 수입량이 1만1130㎘로, 작년 동기(1만3134㎘)보다 15.3% 감소했다. 위스키의 평균 수입가는 병당 8354원으로 지난해보다 0.2% 올랐다. 영국산이 전체 수입의 94%를 차지했다.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에도 12% 감소했다. /연합뉴스

사과·배 작은 것이 뜬다

당도 높고 가격 저렴

크기가 작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사과, 배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과일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과와 배는 크기가 클수록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간 대형마트에서는 최소 200g 이상의 사과나, 500g 이상의 배를 취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배의 경우 과일 크기가 전체적으로 줄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주요 산지인 나주·영암 등 남부 지방은 반쪽 장마를 겪어 가물었고, 이후 무더위로 인한 고온 현상으로 충분히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과는 과일 크기는 줄어도 일조량이 충분했고, 수분이 부족한 대신 과수의 영양분 조절 기능이 최대화 돼 당도가 높아 충분한 상품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통업체는 올해 수확량이 늘어난 '작은 과일'에 대한 농가 재고 소진을 위해 사과와 배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사과의 경우 200g 크기 이하로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은 300t을 준비해, 시세보다 30% 저렴한 3500원(1kg, 5~6개)에 판매한다. 배는 500g 크기 이하로,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올 봄 냉해 피해로 외관이 고르지 못해 선물세트 물량으로 구성하지 못한 200t을 1만2500원(3.5kg, 5~9개)에 판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나는 '백화점 콘서트' 지난 1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밴드 'ZERO TAX'가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펼쳐 고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광주신세계 제공〉

방하남 장관, 광주 하남공단 中企 등 방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광주를 방문해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후 노동현장,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광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한 방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하남공단 내 한 중소기업을 찾아 작업 중인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방 장관은 이어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며 중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떡과 한과 등을 권하며 "전통시장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방 장관은 장애인 보호시설 광주 행복재활원에 전달할 위문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한과, 참기름 등을 구입한 방 장관은 약 50여분간 시장에 머문 뒤 행복재활원을 방문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외제차 수리비 낮아지고 보험료 인상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등 고객 고지 의무화

내년에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나서 '부르는 게 값'인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외제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만 평균 300여만원에 달하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는 차량 렌트비도 200여만원에 이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수리비와 부품 값을 부풀린 정확을 포착,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수리비 합리화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다. 중고 부품을 쓰더라도 확인조차 안 됐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 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실적 개선 내수주 저가 매수 추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9월 FOMC와 독일 총선이 추석연휴 휴장기간 동안 진행되고, 이에 국내증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경기민감 대형주로의 포트폴리오 압축과 현금비중 확대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OSPI가 8월 저점대비 7.8%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데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결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한국증시의 차별적 메리트가 점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해볼만한 연휴 이후의 증시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Fed가 자산매입 축소에 따른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축소 결정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시장 예상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경기 펀더멘털이 견고하지 못한 일부 신흥국가 등은 단기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여지가 있다.

단기 급등세 이후 KOSPI 2000선 전후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흥국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유출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이며 수급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다.

관심 업종은 필수소비재, 통신, 경기소비재(호텔·레저, 온라인 쇼핑),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8월 이후 상승을 주도한 업종을 살펴보면 IT, 전기전자, 운수장비, 건설 등 외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글로벌 경기모멘텀과 국내 정책모멘텀이 반영된 업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들 경기민감주들이 이익개선 폭 대비 주가상승폭이 단기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내수주와의 수익률 격차도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내수주의 가격메리트에도 관심을 높여볼 만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중국의 국경절이 이어질 예정이고, 3·4분기 프리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익개선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나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실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내수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3·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이익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필수소비재, 통신과 경기소비재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전년동기 대비 개선세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도 경기소비재, 제약·바이오, 통신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경기소비재 내에서 온라인 쇼핑, 호텔·레저, 미디어 관련주의 이익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